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크리스탈지노믹스·보령제약 ... 'K의료 품격' 높였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2016 메디컬코리아 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은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차지했다. 올 한 해 가장 두각을 보인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에 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은 크리스탈지노믹스, 보령제약, 아이센스에 돌아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 한경닷컴 등 한경미디어그룹이 공동 주최한 2016 메디컬코리아 대상에는 종합병원 4곳, 제약·바이오기업 9곳, 우수병원 14곳 등 총 27개 병·의원 및 제약·바이오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올해 9회째를 맞은 메디컬코리아 대상은 전문 치료센터 및 진료과목별 우수 병·의원, 국내 제약 산업 선진화를 이끈 우수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한경미디어그룹은 300개 병·의원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충성도, 브랜드 파워 등 조사 자료와 10월 17일부터 2주 동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내외 불안 상황에도 선전 올해는 수상하는 병·의원 및 기업 수를 예년 대비 3분의 1 정도 줄이면서 상의 권위를 더욱 높였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18개 수상 병·의원 가운데 고도일병원과 서정환의원 등 두 곳은 9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은 지역 거



점 최고 병원이자 해외 환자 유치 우수 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국대 병원은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함께 진료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암, 심혈관, 희귀질환 등 고난도 질환 의료 적정성 평가도 우수하다. 2010년 문을 연 국제진료소는 국내 병원 중 러시아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서울 서남권 대표 대학병원이다. 환자 중심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통해 여러 분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통합 진료를 펼친다. 해외 환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미국 등 60여개 국가에서 외국인 환자가 이대목동병원을 찾고 있다.

우수 병원으로는 서정환의원(성장클리닉부) 근로복지공단(재활센터부) 구의료재단 구

병원(대장항문부) CM병원(어깨관절센터부) 고도일병원(척추통증부)도 꼽혔다. 이와 함께 리더스헬스케어(영상의학부) 민병원(갑상샘부) 부천 연세사랑병원(관절척추부) 서울365mc병원(비만치료부) 안산21세기병원(척추관절부) 유스피부과(피부과-안티에이징부) 갈렌의료재단 박병원(뇌심혈관질환부) 참포도나무병원(허리디스크부) 한그루치과병원(임플란트부)도 부문별 우수 병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산화·수출에 앞장서 식약처장상을 받은 크리스탈지노믹스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신약을 상용화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회사가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는 식약처에서 판매허가를 받았다. 고혈압 치료 신약 카나브를 개발한 보령제약도 식약처장상을 수상했다. 카나브는 15번째



국산 신약이다. 보령제약은 중남미 등에 카나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나란히 식약처장상을 받은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를 국산화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아이센스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80여개국에 혈당측정기를 수출하고 있다.

제약사 부문은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받았다. 물 없이도 짜 먹을 수 있는 감기약 물대원을 개발한 대원제약은 우수일반의약품 부문에 꼽혔다. 박카스, 베나치오, 판피린, 아이봉 등 일반의약품 및 의약품품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제약은 대학생 국토대장정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받아 사회공헌부문 우수회사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초 4가(價) 세로베양 독감 백신을 개발한 SK케미칼과 복합필러 티슈필을 선보인 JW중외제약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미현/이지현/김근희 기자 mwise@hankyung.com

2016 메디컬코리아대상 수상 병원·기업		
부문	수상부문	병원/기업명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상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제약회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크리스탈지노믹스
		보령제약
의료기기		아이센스
제약회사	글로벌시장개척	대웅제약
	우수일반의약품	대원제약
	사회공헌	동아제약
	백신	SK케미칼
	필러	JW중외제약
	개량신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종합병원	건강의학센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우수병원	대장항문	구의료재단 구병원
	비만치료	서울365mc병원
	어깨관절	CM병원
	척추통증	고도일병원
	재활센터	근로복지공단
	영상의학	리더스헬스케어
	갑상샘	민병원
	관절척추	부천 연세사랑병원
	성장클리닉	서정환의원
	척추관절	안산21세기병원
	피부과-안티에이징	유스피부과
	뇌심혈관질환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허리디스크	참포도나무병원
	임플란트	한그루치과병원

심사평 이무열 심사위원장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대내외 약재 속에서도 ... '의료강국 코리아' 디딤돌 났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등으로 온 국민과 국가가 아픔을 겪어 올해는 이런 아픔을 극복하면서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는 등 대외 환경이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해줘야 하는 주역들이 '메디컬코리아 대상'이라는 축제의 장에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늘어나는 작금의 현실에서 사회의 아픔까지 치유해주는 의료기관과 의료산업 종사자가 많아져 이 자리가 더욱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심사할 때마다 충분한 수상 자격을 갖췄는데도 아쉽게

영예를 누리지 못한 곳이 많았는데 올해는 아쉬움이 다소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은 지역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 전문병원으로 특화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복지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는 크리스탈지노믹스와 보령제약,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아이센스가 각각 식약처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을 포함 총 27개 병원과 기업이 종합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우수병원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분이 대상 수상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놀라웠던 것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훌륭한 의료기관과 기업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메디컬코리아 대상이 '의료강국 코리아'의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행사가 매년 치러질 때마다 의료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의 뛰어난 의료 능력으로 21세기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주역은 여러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약산업과 의료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MEDICAL KOREA AWARDS 2016

2016 메디컬코리아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건국대학교병원
KYUNGJU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보건복지부 장관상

이대목동병원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메디컬코리아대상(Medical Korea Awards)은 의료산업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기업 및 병원을 선정·시상함으로써 국내외 소비자들이 고품격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